

탈주하는 ‘몸주체’와 회의를 시작하는 비체

—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박 선 경*

요약

한강의 작품 『채식주의자』는 여성 자아들 사이의 ‘차이’들을 보여줌으로써 ‘주체성’의 문제를 회의, ‘재사유’에 하는 ‘유목적 주체’의 모습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은 철학적,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주체/탈주체, 가부장체제의 질서, 여성주의 문제를 다루는 독창성과 심미안의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을 관통하는 두 자매의 대칭구도는 남근이성적 언어가 기입된, 기존의 ‘코기토적 주체’(언니)와 몸적 경계선의 침범에 대해 온 몸으로 저항하는 ‘몸주체’(동생)로 분기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주체와 탈주체의 변이적 모습들로서, 유목적 주체들의 다양한(複數) 모습이라 하겠다. 거기에는 가부장체제 안에서 ‘살아본 바 없거나’(언니), 체제에서 추방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되거나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동생), 여성들의 현실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자매의 상반된 두 여정의 근간에서 가부장제가 공통분모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떠한 모습의 주체이던 여성 삶은 가부장체제의 피침식자로 한정되는, 아픈 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매일같이 소소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가부장체제의 끊임없는 ‘경계선’ 침범과 강압적 관리로 여성은 주체 아닌 비체로, 혹은 상상계를 동원한 몸주체로, 유목적 주체로 분기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은 ‘주체’라고 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과 그 존재적 의미마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여성 현실의 심도 깊은 재현을 통해, 현실 이면의 가부장적 상징체제의 폭력적 원리와 실상 및 분기할 수 밖에 없는 유목적 주체라는 시대인식을 형상화하는 것이었다.

* 한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주제어: 유목적 주체, 체현, 몸주체, 가부장적 상징체제, 상상계, 상징계, 몸의 경계선, 비체

목차

1. 서론
2. 본론
 - 1) 신체 경계선에 민감한 몸주체, 영혜
 - 2) 자각을 시작하는 가부장제의 이상적 여성, 인혜
 - 3) '비체'들의 유목적 주체 탐색
3. 결론

1. 서론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여주인공이 서두에서부터 벌이는 기이하고 일탈된 행동에 이어 정신병이 심화되고 죽음(자살)을 향한 강행이 진행됨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붙잡은 채 인물의 정신적 여정에 동참케 하다 결말에는 서사공간 한 복판에 독자를 남기는, 즉 깊은 공감과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작품은 거듭 읽을수록 우리 인간의 내면세계와 세계질서의 긴밀한 불가분성을 은유적으로 재현하며, 인간과 세상이 엮어진 그 매듭점들을 찾아 풀어낸다는 점에서 수작이라 하겠다. 잘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 존재하는 숨구멍처럼, 우리 일상에 밀착되어 잘 볼 수는 없으나 '주체'를 지배하는 가부장적 상징체제와 그 이면에 실제하는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는데 성공한다. 더욱 깊게는, 이 작품은 체제의 지배 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체는 무엇인지?', '과연 실존하고 계신지?'와 같은 '존재'의 본령과 그 실체를 되묻게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독자는 일탈적 사건들의 전개와 여러 인물들의 정신영역, 심리선을 따라가느라 처음엔 크게 느끼지 않으나, 작품은 분석을 더 할수록 여성에게

요구되어 온 관습(고단한 노동, 지속되는 가사, 폭력적인 처우,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여성현실)에 대한 응시와 그것을 경험해 온 여성만이 쓸 수 있는 글쓰기가 그 중심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작품은 여러 층위의 서사공간(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이 한 지점에서 관통되며, 정신계의 표층과 심층이 바늘땀의 매듭처럼 아래 위로 드나 드는데, 이 작품이 갖는 독창적 고안이라 할 것이다. 즉 일상의 사건에 연계되는 체제이념(규율)과 그에 순응 혹은 저항행동이 정상인의 상징계와 정신병자의 상상계와 교차, 치환되는 방식은 그 서사적 예술성을 담지하고 있다 하겠다.¹⁾

작품은 주인공 영혜와 그 언니 인혜가 대칭점에 놓이며, 두 여자의 생은 '상반'된다 싶을 정도의 '차이'로 서술, 전개된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친자매임에도 시종일관 두 여자의 일생과 정신세계와 행동양식이 쌍곡선처럼 멀어짐으로써, 어머니를 포함하여 여성 주체들의 다기한 모습과 정신세계가 펼쳐지는데, 유목적 페미니즘의 다양한 여성주체, 여성 주체의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독자는 분기되는 '여성'들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1) 『채식주의자』는 발표 당시부터 문단의 큰 주목을 이끈 작품으로 연차에 비해 여러 연구자의 분석이 있어왔다. 가부장적 질서에 주목한 연구로는 양진영의 '주인공은 남성중심적, 폭력적 질서에 맞서는 헤테로토피아를 만들'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박선경은 '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가, 동물에게나 사람에게 똑같이 행해지는 상징계의 질서를 현현시키고 있음을 지적, 한 존재가 상징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미치거나 죽어야만 허용되는 일임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에 대한 심리학적, 존재론적 고찰로는 박진의 '자아 의식의 서로 다름과 충돌 속에 작가가자신 및 독자가 성찰하게 만드는 알레고리 기법을 주목하며 한 서사공간 속에 독자와 작가, 인물들의 정신세계가 뒤섞여 있음'을 분석하였고 심진경은 '변신하는 주체의 심리를 다루며, 병리성과 현실성이 결합된 독특한 작품'이라 보았다.

"박선경, 『채식주의자』의 세 주인공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66집, 2022. 8." "박진,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글쓰기의 자의식과 독서의 알레고리』, 『현대문학이론연구』 79집, 2019."

"심진경, 「변신하는 주체와 심리적 현실로서의 환상」, 『세계문학 비교연구』 65집, 2018."

"양진영, 「한강 『채식주의자』에 구현된 헤테로토피아 공간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6집, 2020. 2."

과연 ‘여성 주체’의 모습을 무엇일지 과연 ‘존재는 하고 있는지’ 문제의식에 갖게 되는데 이러한 회의는 작가의 의도된 기획으로, 작품을 통해 모두에게 던지는 화두적 질문이자 주제라 하겠다.

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주체’의 논의는 확정된 정체성이나 자아동일성 확립보다는, 계급, 인종, 삶의 양식, 심리, 젠더 등 ‘차이’에 따른 동시 작동들을 포착하면서 ‘유목적 주체’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브라이도티 등 유목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주체성을, (남근이성중심 체제 이데올로기의 이원론적 대립없이) 주체의 통일성을 “재사유”하는 방식과 더불어, 특정 문화와 인종 정체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여성들 사이의 “차이”들을 재사유하는 방식을 권한다.²⁾

한강 작가는 작품 『채식주의자』를 통하여 여성 자아들 사이의 ‘차이’들을 보여줌으로써, ‘주체성’의 문제를 회의, “재사유”케 한다는 점에서 ‘유목적 주체’의 모습들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서사는 전개를 더해가며 두 자매가 보여주는 자아 분열과정 및 주체의 와해를 보여주는데, 이는 ‘자아, 주체’에 대한 재사유를 불러일으키며, 여성주체의 본질에 대해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주체가 와해되고 자아가 분열되는 전개 과정을 통해, 작품은 기존의 ‘이상’적 주체의 모습으로 환원할 수 없는 시대 인식을 조감(鳥瞰)하듯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이러한 여성 주체들의 분기된 모습들에 공감하며 독자 역시 자신의 ‘주체’에 대한 재사유로 유목적 광활함에 놓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내가 생각한 나의 주체성은 과연 세상에서 그러한 의미를 갖는지, ‘나’란 현 존재는 내가 생각하고 가꾸어온 존재의 의미와 부합하는지 혼돈과 혼란의 재사유에 봉착하게 된다.

2) “브라이도티는 페미니즘적 여성 주체성을 남근이성중심적인 서구 형이상학의 이원론적 대립 없이 주체의 통일성을 재사유하는 기반으로 삼는 동시에, ‘특기 문화와 인종정체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여성들 사이의 차이들을 재사유하는 이중의 초점을 달성하려 한다.”

‘Rosie Braidotti,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도서출판 여이연, 2004, 13면.’

그렇다면 작품의 두 자매가 보이는 상반된 자아들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자매의 대칭구조를 통해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각기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그들은 과연 '존재'는 했는지, '주체'라고 할 수 있을지 그 실상과 이면에 감추어진 깊은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작품이 갖는 서사적 의미와 기존 '주체'의 모습과 다른, 이 작품이 탐색하는 '주체'는 과연 어떤 모습과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 본론

1) 신체 경계선에 민감한 몸주체, 영혜

'주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유목주의는 주체성의 신체적 뿌리를 재고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체의 신체 혹은 체현이란, 생물학적인 혹은 사회학적인 범주가 아니라 신체적인 것, 상징적인 것, 사회학적인 것이 중첩되는 지점으로 이해³⁾ 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주체'는 몸적으로 육아, 요리, 가사 등 몸적인 생의 시간과 임신, 출산, 수유의 몸적 체현으로 몸적 기능과 역할로 존재해 왔다. 그 근원에는 남근중심의 이성주의가 남성의 이원적 대척점에 여성을 설정함으로써 남성은 이성과 논리의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여성은 감정적이고 생식을 담당하는 형이하학적인 역할로 양분,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남·여에 따른 이성중심의 형이상학과 몸중심의 형이하학의 이분법은 자연적인 분류이기보다는, 오랜 역사 동안 상징체제의 남근이성중심주의의 원리이자 규약으로 여성의 생산력과 노동력을 취하는 동시에 여성을 배제해 온 상징계의 사회적인 원리였다.

작가는 이 점에 착안한 듯, 여주인공 '영혜'는 시종일관 '몸'과 몸을 둘

3) 'Rosie Braidotti, Ibid, 30면.'

러싼 경계(옷,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음식, 거식 등)와 몸의 기억 및 연계된 행위(폭력, 장애, 부상, 살해, 위협, 자해, 자살)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영혜는 서사 처음부터 몸과 관련한 모든 상상력과 기억, 몸적 행위, 몸의 현상 및 반응들을 전개하는데, 결미의 죽어가는 순간까지 처절한 몸부림만으로 표현하고 반응하는 그녀의 언행은 ‘몸은 대상이 아니라 살고 있는 주체, 매 순간 실존하고 있는 주체’⁴⁾라는 푸코의 명제에 기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채식주의자』는 서두에서부터 말미에 이르기까지, 말과 생각, 행동 모두 몸과 관련된 표현과 서술로 이어지는데 그야말로 몸주체의 ‘몸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렇듯 주인공 영혜는 신체와 관련해서만 기억, 행동, 진술하는데 그 시작점은 몸의 경계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몸에 대한 외부의 자극과 반응들이 몸의 경계선을 침범하는가 아닌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영혜 1인칭시점으로 서술되는 1부 〈채식주의자〉의 대부분은 그녀의 몸 감각과 몸적 반응, 몸의 행동과 생각으로 전개되는데, 몸과 관련한, 몸의 서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혼으로 분가(分家)하자마자 그녀는 윗통을 벗고 브레지어를 벗기 시작한다. 이러한 탈의(脫衣) 행동은 집안이라는 사적 공간을 벗어나 점차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적 공간으로 넓혀간다. 문제는 편하기 위해 옷을 벗는 행동이, 사회적 공간에서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만하는 상징계의 경계선을 ‘이탈’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인과 달리,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것들 즉 속옷과 외투, 몸에 주입되는 육식과 몸에 투여되는 약물이거나 주사바늘 등에 예민한 거부반응을 보이다 점차 보다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발휘한다. 이는 곧 자신의 몸경계를 지키려는 것이 체제의 경계선 허물기와 맞닿아 있음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우리는 개개인의 몸 경계선을 침범하는, 일상인 듯 침해하는 상징체제의 질서를 목도할 수 있다.

4) ‘강미라, 『몸, 주체, 권력-메를로 퐁티와 푸코의 몸 개념』, 이학사, 2011, 110면.’

결혼한 뒤 아내는 집에서 아예 브레이저를 벗고 지냈다..... 답답해서, 브레이저가 가슴을 조여서 견딜 수 없다고 아내는 변명했다.(12면)

아내는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환자복 상의벗어 무릎에 올려 놓은 채, 앙상한 쇠골과 여윈 젖가슴, 연갈색 유두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언제부터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정신병동에서 나왔나봐, 젊은 여자가”..... (63면)

알록달록한 알몸 위로 구속복을 입히려 하는 그들에게 영혜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응급요원의 팔을 거세게 물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새된 고향을 질렀다. 몸부림치는 영혜의 팔뚝에 주삿바늘이 꽂혔다. (168면)

위 예문과 같이 단순히 답답한 옷과 브레이저를 안입겠다는 행동은 정신이상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는 몸을 가려야 된다’는 사회적 통제 및 검열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녀는 남편 회사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마저도 노브라의 복장을 하는데, 이는 사회적 규제의 선을 넘는 것이 되고, 남편을 포함 주변인들이 그녀를 부적응자, 정신이상자로 보게 만든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몸’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얼마나 개개인을 일상생활에서부터 밀착하여 통제하는지, 한 ‘자아’를 그 근간에서부터 구성하는 상징체제를 드러내는 - 발굴의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그녀의 이러한 일련의 사소한 행동들이 주변인들에겐 사건이자 ‘정상(正常)’을 벗어난 행동으로 인식되는데, 특히 육식에 대한 거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점에서 삼시세끼 음식 섭취에마저 간섭, 억압하는 가부장의 질서와 한 ‘주체를 향한 통제와 감시가 ‘몸’과 관련한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⁵⁾

주인공 영혜는 일찍이 이 점을 간파한 듯, ‘몸’의 경계선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바 몸을 가리는 의복에 이어, 몸에 투입되는 음식물, 약물, 주사에 대해 저항하며 특히 육식(肉食)에 대한 거부로 그녀는 자신의 사활(死活)을 건다. 아버지의 계속된 폭력 속에서도 아무런 내색없이 조용히 성장했던 그녀가, 결혼 후 부모로부터 독립하자 그녀는 육식 강압에 점차 저항의 강도를 높이며 저항의 블랙홀로 몰입하여 간다. 육식 및 거식 투쟁, 약물 및 치료거부 등은 작가의 독창적인 통찰로 개개인의 일상에 녹아있는 지배체제의 ‘주체’ 구성요소를 포착하고 있다 하겠다.

이후 일체의 고기 버리기와 육식에 대한 그녀의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잔혹한 장면들(아버지의 잔인한 개 도살)이 전개되는데, 그녀를 쳐다보던(관절이 너털너털해 진) 개의 마지막 순간이나 그 개고기를 아무 생각없이 먹던 자신, 개장국 위에 떠오르던 개의 눈빛 등 그녀의 ‘몸’으로 들어와 버린 개(고기)가 그녀 내면의 큰 트라우마로 자리잡았음이 전개된다. 내 몸에 들어온, 잔인하게 죽어간 개의 고기와 가장의 폭력에 맞고 자란 그녀가 오버랩되며 가부장제의 상징계 질서가 갖은, 어리고 약한 개체에 게 가해온 폭력이 그녀가 저항하는 대상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의 잔혹한 장면들은 그녀의 무의식의 깊은 상처로 남아, 부모의 슬하를 벗어난 뒤 현현되는 바, 그녀의 계속되는 끔찍한 악몽을 통해 전개, 서술된다. 그녀의 무의식이 온통 피, 시체, 살해, 죽음 등등의 섬뜩한 장면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여주는데, 왜 그녀가 정상적일 수 없는지, 미처가는 이유를 알게 해준다.

누군가의 목을 자를 때, 끝까지 잘리지 않아 덜렁거리는 머리채를 잡

5) 아이리스 영은 ‘억압’을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으로 나누는데, 이는 남근이성중심의 원리였다고 지적한다.

‘이상화, 『페미니즘과 차이의 정치학』, 『여성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9.’

고 마저 칼질을 할 때, 미끌미끌한 안구를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 그러다 깨어날 때, 생시에 뒤뚱거리며 내 앞을 걸어가는 비둘기를 죽이고 싶어질 때, 오래 지켜보았던 이웃집 고양이를 목조르고 실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 땀이 맺힐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때,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와 나를 먹어버린 때 그때..... (42면)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 피의 형상, 파헤쳐진 두개골, 그리고 다시 맹수의 눈, 내 뱃속에서 올라온 것 같은 눈, 떨면서 눈을 뜨면 내 손을 확인해. 내 손톱이 아직 부드러운지, 내 이빨이 아직 온순한지. (43면)

국밥 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53면)

그녀의 꿈의 내용을 보면 신체들의 파손, 절단된 신체, 분리 훼손된 신체들이 나열되며 끔찍하고 파열된 기억과 이미지로 채워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끔찍한 공포의 기억과 정서는 '신체'의 경계선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환기할 수 있다. 공포는 죽음과 같은 단절에서 비롯된다는 심리학의 명제와 같이, 신체의 절단과 훼손, 피 등은 몸의 죽음 이미지로, 그녀의 무의식은 죽어가던 개와 같은 '공포'로 채워져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신나간 듯 뉘 놓고 지내는 그녀가 내면적 정신세계에서는 생과 사를 오가는 공포와 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⁶⁾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의 목숨을 건 저항과 투쟁 대상이 신체의 경계선(의복, 육식, 약물투여) 침범이라는 점에서, 분리 분기된 '여성주체'의 유목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는 욕망과 의지의 접면이며 물질적, 상

6) 주체의 체현된 본성을 나타내는 것인 신체는 급증하는 담론들 및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규범들의 터전이 된다. 즉 경제, 생물학, 인구학, 가족사회학, 정신분석학, 인류학 등은 모두 신체에 대한 담론으로 이해될 수 있다.

'Rosie Braidotti, Ibid, 110면.'

정적 힘들이 교차하는 장이고, 복수적 코드들이 각인되는 표면이며 이질적 불연속적 정동적 혹은 무의식적 본성을 지닌 에너지들을 포획한 문화적 구성물이다..... 체현되었다는 것은 성차(性差)화된 물질이라는 말이다. 이 성차화된 것은 애시당초 사회적 정치적인 것들과 연관되고, 그러한 권력의 핵심에 바로 성별의 신체가 있다.”⁷⁾

다음, ‘육고기’는 또 다른 존재의 신체이며 ‘육식강요’는 타(他) 신체를 내 신체에 강제로 집어넣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물(개)과 마찬가지로 한 자아의 신체를 부친이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좌지우지 통제하는 실상의 재현은 가부장적 상징체제의 폭력성과 강제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자아’ 형성은 상징계 원리의 간섭, 외부세계의 내면화, 상징질서의 기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푸코의 명제를 상기할 수 있다.⁸⁾ 신체는 담론 확산의 대상으로 몸주체론과 몸담론을 이끌어왔으며, 또 살아있는 유기체, 체현된(embodied) 주체에 대한 담론들의 확산은 주체설정의 고전적 정의에 탈구(脫口)가 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주인공은 ‘체현된 주체’로서 탈가부장적, 탈체제화한 유목적 주체, 즉 분기되는 탈주체의 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⁹⁾

개에 물린 상처가 나오려면 먹어야 한다는 말에 나도 한입을 떠넣었지. 아니. 사실은 밥을 말아 한그릇을 다 먹었어. 들깨냄새가 다 덤지 못한 누린내가 코를 찔렀어. 국밥 위로 어른거리던 눈, 녀석이 달리며,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며 나를 보던 두 눈을 기억해, 아무렇지도 않더군, 정

7) ‘Rosie Braidotti, Ibid, 14면.’

8) ‘Rosie Braidotti, Ibid, 93면.’

9)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주체성 재정의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유물론, 즉 체현된(embodied) 것이다..... 주체성의 신체적 뿌리를 재고하는 것이야말로 유물주의라는 인식론적 기획의 출발점이다.”

‘Rosie Braidotti, Ibid, 30면.’

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53면)

어떤 고향이, 울부짓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 박혀 있어, 고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고기를 먹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있는 거야. 틀림없어. 피와 살은 모두 소화돼. 몸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고, 찌꺼기는 배설됐지만 목숨들만은 끈질기게 명치에 달라붙어 있는 거야.

한번만, 단 한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뛰쳐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61~62면)

얼핏 든 잠에 꿈을 꾸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다. 칼을 배에 꽂아 힘껏 가른 뒤 길고 구불구불한 내장을 꺼냈다. 생선처럼 뼈만 남기고 물렁한 살과 근육을 모두 발라냈다. 그러나 내가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잠에서 깨어난 순간 잊고 말았다. (61면)

위 예문의 “어떤 고향이, 울부짓음이 겹겹이 뭉쳐져. 거기(명치) 박혀 있어”, “그 목숨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걸려있는 거야.”라는 울부짓음에서, 고기는 타자의 살(肉)이었으며,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 그들의 ‘고함과 울부짓음이 내 속에 달라붙었다’는 외상(trauma)에 대한 인식이 주목된다. ‘외상이라는 개념은 의미화 과정에 어떤 교착상태나 고착이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외상은 상징화의 흐름을 정지시키고 주체를 초기 발달단계에 고착시킨다.’¹⁰⁾ 즉 어린 시절의 외상으로 인해 그녀가 상징화를 멈추고 그 시절의 상상계에 머물고 있음이라 분석할 수 있다.

10) “프로이트에게 외상이라는 개념은 아이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실제적으로 또는 상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원 장면primal scene과 연관된다. 이러한 동화시킬 수 없는 기억은 후기의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어떤 사건이 그것을 의식에 다시 불러들일 때까지 망각되고 억압된다.”

‘손 호머 지음, 김서영 옮김, 『라캉읽기』, 은행나무, 2006, 132면.’

더불어 타생명(육류)의 ‘울부짓음이 겹겹이 뭉쳐져’ 자신의 명치에 박혀진 채 그들의 고통으로 채워진 자기의 무의식과 그에 따른 악몽의 원인을 주인공 스스로 분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들뢰즈의 “주체는 ‘되기’와 몸의 체현을 통해 형성된다”는 명제처럼¹¹⁾ 아버지의 폭력으로 살육당한 개의 사체를 강제로 먹어야 했던 일상과 그 기억과 외상들이 명치에 남아 체현된 주체라고 스스로 인식한다. 따라서 그녀는 (체제가 인정하는 가치들의) 동일성을 획득한 상징계의 ‘주체’가 아니라, 가장의 폭력과 그 결과물들이 명치에 박힌 ‘체현적 주체이자 상징체제에서 매일같이 입는 외상으로 인해 상상계에 머물게 된 자아임, 그 실제 모습을 통해 진술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의 몸을 둘러싼 의복, 음식, 치료에 대한 예민한 거부가 외상(Trauma)으로 빚어진 ‘체현된 주체’가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었고, 자기 몸을 침범하는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고기를 버리고 채식주의자가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주인공은 폭력의 결과물(도살된 고기)과 그들의 고통이 명치에 박히는 체현(體現)을 통해 형성된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¹²⁾

11) “들뢰즈는 특히 일반적인 소수자-되기, 유목민-되기 혹은 분자적으로-되기를 강조한다. “되기”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 우리의 존재인 주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우리가 수행하는 기능들로부터 출발하여 입자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 입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가 현재 되고 있는 중인 것과 가장 가까운 운동과 휴식, 빠름과 느림의 관계를 확립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되어간다.”

남성에게 가능한 소수자-되기란 없다.

여성-되기란 모든 것들 중에서도 소수자-의식을 위한 특권화된 입장이 된다.

“여성-되기”의 과정에서 “여성”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경험적인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위상학적인 입장들, 적극적인 힘들을 긍정하는 수준 혹은 정도이자 유목적, 리즘적 의식의 수준들을 지칭한다. 여성되기는 변형의 일반 과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Rosie Braidotti, Ibid, 186-187면.’

12) 세계와 상관하는 장소적 의미로서의 몸(푸코), 생산적 욕망의 흐름으로서의 ‘몸주체’ (들뢰즈, 가타리)가 주체 논의의 중심을 이루게 된 바, 들뢰즈는 욕망들의 접속, 흐름들의 통접, 강렬도의 연속체가 지속되는 곳에 존재하는 ‘기관없는 신체’를 우리가 도달해야 할 ‘주체’ 개념으

2) 자각을 시작하는 가부장제의 이상적 여성, 인혜

주체의 체현된 본성을 나타내는 것인 '신체'는 급증하는 담론들 및 다양한 형태의 시각과 규범들의 터전으로, 신체는 복수적인 수많은 신체들로 변화하고 있다고 푸코는 말한다. 푸코는 현대를 주체의 '체현'된 물질적 성격에 관한 팽창적 과잉노출의 시대이자 '생체 권력의 시대'라 말한다.¹³⁾ 주인공 영혜가 그녀를 둘러싼 상징계 질서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상상계의 자아¹⁴⁾를 보여주는 반면, 언니 인혜는 반대로 가부장적 상징질서에 순종, 순응하며 주어진 노동(가사, 경제, 양육, 봉양)에 온 몸을 '비수'어 넣는 인생여정을 보여준다.

의도적인 구도라고 옛보일 만큼 자매의 모습은 대칭되는데, 두 여성 삶의 실존적 실태가 병치됨으로써 상상계의 타자적 주체에서 벗어난 상상계의 '주체'와 자기인식이나 자의식이 없는 상상계의 주체(?)를 목도할 수 있다.

동생과 달리, 언니 인혜의 모습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가족에게 "선량함, 안정감, 침착함으로 감동을 주는"(161면), 가부장제가 요구해 온 이상적인 여성성을 보여준다. "딸로서, 언니나 누나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가게를 꾸리는 생활인으로서,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스치는 행인으로서까지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169면). 실제 인혜는 가족생계를

로 제시하고 있다.

참조: '절 들뢰즈, 가타리 저, 최명관 역, 『1장, 욕망하는 기계들』, 『앙티 오이디푸스』, 민음사, 1994.'

13) 'Rosie Braidotti, Ibid, 110~112면.'

14) "상상계는 자아의 영역이며 감각에 대한 지각, 동일시, 그리고 통일성에 대한 환영적인 감각으로 구성된 언어 이전의 영역이다. 상상계에서의 일차적 관계는 자신의 신체, 즉 신체의 거울상 자체와의 관계이다. 이러한 상상계의 과정들은 '자아'를 형성하고 외부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주체에 의해 반복되고 보강된다. 그러므로 상상계는 발달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Sean Homer, 김서영 역, 『라캉읽기』, 은행나무, 2006, 54면.'

책임지고, 아픈 자식과 노쇠한 부모님, 정신병환자인 동생을 돌보는 '성실한 현모양처'로 '석달 간 한 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는 극한의 생의 시간들을 감당해 왔다. 더불어 동생 영혜(처제)와 불륜을 저지르며 예술혼을 추구하는, 현실을 몰각한 예술가 남편을 감내하며 경제생활마저도 대신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¹⁵⁾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할 줄 알았으며, 성실은 천성과 같았다. 딸로서, 언니나 누나로서, 아내와 엄마로서, 가게를 꾸리는 생활인으로서, 하다못해 지하철에서 스치는 행인으로서까지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그 성실이 관성으로 그녀는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169면)

그녀는 여전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꼬박 석달째 한 시간 이상 이어서 잠들지 못했다. 영혜의 목소리와 검은 비가 내리는 숲, 눈에서 선혈이 흐르는 자신의 얼굴이 긴 밤을 사금파리처럼 잘게 바수어 낼 뿐이다.(165면)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인 동생 영혜를 돌보며, 인혜는 문득 "이 진창의 삶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의 정신을, 그 무책임을 용서할 수 없(172)"게 되며 "사실은, 그 애를 은밀히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인혜는 정신분열증의 동생이 벌이는 의류, 음식, 치료에 대한 완강한 거부에서 굳건한 의지와 저항적 행위를 보여주는 한 '주체'를 마주하게 된다. 성실함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은 정작 주체적 의지나 삶이

15) "성의 문제야말로 남녀 간의 가장 뿌리깊은 지배, 종속을 보여주는 정치적 관계이다."
'장필화, 『여성, 몸, 성』, 또하나의 문화출판사, 1999, 109면.'

없음을 의식하기 시작,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녀 자신이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생생하게 의식한 것은 그와 함께 살아온 긴 시간이었다. 기쁨과 자연스러움이 제거된 시간, 최선을 다한 인내와 배려만으로 이어진 시간, 바로 그녀 자신이 선택한 시간이었다.(196면)

문득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것에 그녀는 놀랐다. 사실이였다.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197면)

인혜는 '살아본 적 없이, 다만 견뎌왔을 뿐'이라는 자성에 이르며, '인내와 배려만으로 이어진 시간, 바로 그녀 자신이 선택한 시간이었다'(196면) 것에 그녀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캉은 주체의 근본적인 특징이 그가 자신 스스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무지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은 주체를 지식의 결여, 즉 무지에 근거하여 위치시킨다. 라캉이 고려하는 주체에게는 자기인식self-knowledge이나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 없다는 점이다."¹⁶⁾

인혜는 몇 년에 걸쳐 환자 동생을 돌보는 과정에서 대비적 인생을 꾸려온 자신의 실제 모습을 깨닫게 되며 '자신이 오래 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201면), 자신에 의한, 자신을 위한 자아가 부재했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자신의 삶의 여정과 자기가 처한 위치와 현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사금파리처럼 잘게 부수어'(165면)¹⁷⁾지며 자신만의 의지도 존재도 없었음을 감지하게 되는데, 몸이 부숩지도록 헌신한 상징체제 내에

16) 'Bruce Fink, 김서영 역, 『주체의 전복 The Subversion of the Subject』 읽기, 『에크리 읽기 - 문자 그대로의 라캉-』, 도서출판 b, 2004, 200면.'

17) 사기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

서 그녀는 주체도, 객체도 아닌 존재한 적 없는 비체¹⁸⁾였음을 체현하는 것이다. “팔루스적 언어의 신화에 따르면 여성은 문자상으로 존재, 부재한 지시물과 동일시된다.”¹⁹⁾

봄날 오후의 국철 승강장에 서서 죽음이 몇 달 뒤로 다가와 있다고 느꼈을 때, 몸에서 끝없이 새어나오는 선혈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믿었을 때 그녀는 이미 깨달았었다. 자신이 오래 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은 연극이나 유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200-201면)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손등으로 묵묵히 문질렀다. 자신을 집어삼키는 구멍 같은 고통을, 격렬한 두려움을, 거기 동시에 베어든 이상한 평화를 그녀는 느꼈다. (202면)

이렇듯 언니가 스스로 존재가 없었음을 깨닫는 순간(붕괴되는 순간), 반대급부로 동생의 저항과 일탈행위는 오히려 한 자아가 존재하기 위한 주체적 의지이자 몸부림이었다는 반전의 의미가 돌출하기 시작한다. 천형(天刑)같은 언니의 삶을 통해, 동생이 미친 것이 아니라 한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침범과 강압으로부터 자신(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행동이었음이 역설되는 것이다.

동생이 정신병동과 죽음을 오가며 사투를 벌이는 신산(辛酸)스럽고 병적인 삶이 오히려 ‘저항’으로서 살아있음을 체현하는 과정이었음에 비해, ‘최선의 성실로 나름대로 성공’한 듯한 언니는 ‘자신이 오래 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201)’, ‘유령’에 지나지 않음을 통찰하기에 이르는 여정이었

18) 비체(abstract, 非體)- 주체(subject)도, 인식의 대상(object 객체)도 될 수 없는 존재, 아예 존재 자체가 지워진 존재. 사고와 행위의 주인공인 주체(상징계에서 호명됨으로써 존재하기 시작하는 ‘주체’)는 인식할 수 없는 존재,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라고 크리스테바는 말한다.

19) Marian Hersch, *The Mother/Daughter Plot*, Indiana Univ.press, 1989, p.44

던 것이다.

3) '비체'들의 유목적 주체 탐색

앞서 살펴본 자매의 두 여로에서 독자는 상반된 자아와 세계인식을 마주할 수 있었다. 자매는 결코 연계성이나 공감대를 찾을 수 없는 이질적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부장적 상징체제의 대문자 여성 언니와 현실에서 '미친' 것으로 간주되어 상상계에 머무른 동생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즉 남근이성중심적 상징체제의 전형적 여성인 언니가 체제질서를 거부하고 탈상징계한(미친)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언니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바스라지고' '구멍같은 고통' 속에 '죽은 듯' 살아온 자신이, 한번도 주체적 선택과 의지를 발휘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주체에게는 자기인식이나 자의식이 없다고 라캉은 말한다. 그에 의하면 "(주체의) 자의식은 타자가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을 내재화하고 타자의 찬성하는 듯한 또는 반대하는 듯한 시선과 의견들에 동화함으로써 우리는 타자가 우리를 보는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타자가 우리를 아는 대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²⁰⁾ 이런 맥락에서 성실한 딸, 언니, 부인, 엄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온 그녀(언니)는, 비로소 자신이 타자의 기호와 기대에 부응해 온 문자상의, 부재한 주체이었음을 깨닫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²¹⁾

20) 어떤 경우이건 주체에 관한 한 결코 반영적인 속성이나 자기인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주체는 죽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어떤 것을 원하지만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말을 하기도 한다. 주체가 무엇이건 간에 분명한 것은 그것이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의식의 주체의 차원에서는 자기self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자기인식이라는 것도 없다.

'Bruce Fink, Ibid, 2004, 202면.'

21) "주체는 어떤 대상에 의해, 즉 스스로 내면화되면서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

이렇듯 같은 부모 하의 자매이면서도 기존 가부장제의 전형적 여성으로 출발하여 그곳으로부터 탈주하려는 언니와 체제질서에 저항하며 온몸으로 체현적 주체성을 보이는 동생의 병립 배치는 현 시대 주체인식의 변화, 이동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²²⁾ 즉 자매를 통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주체, 자기인식이 안되는 주체, 동생의 주체에 감염되어 탈주를 꿈꾸는 모습들을 통해 “본질적인 통일성 없이, 그리고 그러한 통일성에 반대하면서 이행, 연속적인 이동, 상호협력적인 변화들로 이루어진 정체성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는 유목민”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유목민은 집없음이나 강제적인 장소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목민은 고착성에 대한 모든 관념, 욕망, 혹은 향수를 폐기해 버리는 종류의 주체를 형상화한다.”²³⁾

이렇듯 작품은 자매의 대비적 삶을 통한 여성 ‘주체’ 탐색에서, 가부장적 상징체계가 규정해 온 여성 정체성이 아닌, ‘정체성을 복수적 주체로 융해시키는 유목적 주체’²⁴⁾에 대한 인식을 선보이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주체는 이 ‘어떤 것’에 대해 ‘탈중심적’이다. 주체 자체는 권력의 이런 내면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그 때 주체는 내면화된 권력에 대해 ‘탈중심적’이다.”

‘사토 요시유키, 김상운 역, 『권력과 저항』, 도서출판 난장, 19면.’

22) “라캉이 고려하는 주체에게는 자기인식이나 자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라캉에 의하면 자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타자가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을 내재화하고 타자의 찬성하는 듯한 또는 반대하는 듯한 시선과 의견들에 동화함으로써 우리는 타자가 우리를 보는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타자가 우리를 아는 대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Bruce Fink, Ibid, 202면.’

23) 들뢰즈가 말한 대로, “지적인 유목민이 되는 것은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것에 대한 것이요 목적지와 상관없이 가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유목민의 삶은 막간극이다. 그(유목민)는 탈영토화의 백터이다.”

‘Rosie Braidotti, Ibid, 59-60면.’

24) “유목적 주체의 논의는 ‘여성’에 특수한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비계성적, 복수적, 기계 같은 주체로 융해시키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다.”

‘Rosie Braidotti, Ibid, 190면.’

사실은, 그 애(역자주-동생)를 은밀히 미워했다는 것을. 이 진창의 삶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의 정신을, 그 무책임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을 (172면)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다만 견뎌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량한 인간임을 믿었으며, 그 미움대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성실했고, 나름대로 성공했으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었다. (197면)

더 나아가 '살아본 적 없이' 고달픈 생을 연명해야 하는 언니에 반해, '미치거나 죽으려 발버둥치는' 동생은 주체 '되기'를 위한 전복적인 과정을 보여준다.²⁵⁾ 언니는 '이 진창의 삶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172면)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강력한 의지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살아온 그녀의 삶이 '다만 견뎌왔을 뿐' (197면)이라는 내면 깊은 자각에 이르며, 그녀 역시 체제질서에서 놓여나고자 한다.

이는 그녀가 처음으로 상징체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지만, 탈체제화 과정이 순간의 각성이나 인식변화로 이루어지는 - 순탄한 과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수 년에 걸쳐 미쳐가는 동생의 돌봄과정에서 동생보다 못한 자신의 실제적 현실이 오버랩되며, 오랜 시간의 자각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영혜가 그렇게 경계를 뚫고 달려나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모래산처럼 허물어뜨리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사람을 바로 그

25) 여성을 남근이성중심적 체계의 작동자로 보는 분자적 혹은 정작적 견해에 맞서서 들뢰즈는 분자적인 것 혹은 유목적인 여성을 '되기'의 과정으로 제안한다..... 들뢰즈가 남근이 스스로 문헌과 기념비를 세워 온 성적인 이원론으로부터 체현된 주체를 탈식민화시키는 데 강조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에게 주체 갱신을 위한 일차적 움직임은 젠더 이분법들의 와해 그리고 이 이분법들에 기대고 있는 정체성들의 와해라는 점이 따라나온다.

'Rosie Braidotti, Ibid, 188면.'

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무너졌다면 돌아오지 못했으리라”(220면)는 자신의 현실을 내면 깊이 인지하면서부터이다. 이는 탈상징계, 탈체제화 과정이 현실 부적응이나 한 순간의 이성적 통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한 세월 속에 죽음보다 못한 실제적 고통을 체현하며 부득불 다다르게 되는 탈주 공간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동생의 경우 또한, 성장기에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뺏속까지 받아들’이며 ‘영혜의 뺏 속에 아무도 짐작 못할 것들이 스며든’ 결과였다. 즉 영혜는 가장의 폭력으로 점철된 어린시절부터 체제에 대한 응시와 통찰로 탈상징계화 해왔으며 상상계에 자신만의 자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징계에서 미친 여자로 보이거나 죽음마저도 불사할 수 있었던 동생의 독자적인 선택은, 일찍이 상상계에 구축해 왔던 한 주체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여전히 현실의 정신병동에 남아 치료, 약물, 음식의 투여 등 체제질서²⁶⁾ 내에 있기에 그녀는 마지막 저항의 기치를 울리며 자신 몸을 없애는 데 총력을 다한다(죽음).

순간 영혜의 눈이 그녀를 향해 빛난다. 고타함이 격렬해진다. 분절되지 않은 말들이 쏟아져나온다. 목인 사지를 버둥거리며, 영혜는 마치 강박을 끊고 그녀에게 달려들려는 것 같다..... 입에 흰 거품이 물린다. 싫..... 어.....! 흡사 짐승 같은 소리다.

싫.....어.....! 먹기 싫.....어.....(210-211면)

26) “‘살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는 상징계의 준엄한 질서가 그녀를 지배, ‘죽음’이란 개인의 미지막 선택마저 강력억압, 통제하는 상징계가 그 절대적 위용을 드러낸다.”

“박선경, 「자아, 주체를 통제, 규정하는 상징계 질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7집, 2022.11. 91면.”

영혜는 시작에서부터 그러했듯이 마지막까지 몸 경계선 침범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데, 이때 '몸'이란 인간 존재의 궁극적 터전이자 한 주체가 비롯되는 인권의 경계선임을 환기할 수 있겠다. '주체는 세계를 관조하거나 세계를 의식으로 정립하는 주체가 아니라 세계에 몸담고 있는 주체, 육화된 주체가 된다. 개인의 실존은 몸과 영혼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육화된 주체의 존재양식으로, 이러한 실존은 몸으로 표현되고, 몸을 근거로 하며, 몸 자체(푸코)²⁷⁾라는 점을 공감할 수 있겠다.

동시에 '주체성'의 재정의를 새로운 형태의 유물론, 즉 체현된(embodied) 것으로 보는 유목적 주체의 모습이라 해석할 수 있는 바, 상상계로 건너간 영혜와 상징계의 전형적인 여성인 인혜의 실제적 모습을 통해 주체란 몸의 체현을 통해 신체적인 것, 상징적인 것, 사회학적인 것이 중첩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²⁸⁾

이렇듯 작품은 자매의 대칭구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부터 죽음(마지막 인권의 결정마저 당연스럽게 통제하는 상상계 질서가 우리 삶 전반에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음을 재사유케 하고 있었다. 더불어 상징질서로부터 탈주했거나(동생) 탈주의 출발선상에 오른 언니를 통해 이 시대의 '주체가 가진 유목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7) 박선경, 「본격화하는 천운영 작가의, 몸 주체의 몸담론」, 『한어문교육』, 제29집, 한국어언문학교육학회, 240면.

28) "주체의 신체 혹은 체현이란 생물학적인 범주나 사회학적인 범주가 아니라 신체적인 것, 상징적인 것, 사회학적인 것이 중첩되는 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계급, 인종, 종족성, 젠더, 나이, 기타 차별화의 축들이 주체 구성에서 상호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한, '유목민'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동시 발생함을 지칭한다."

'Rosie Braidotti, Ibid, 31면.'

3. 결론

작품 『채식주의자』는 표면적으로는 단순 채식주의자의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철학적,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주체/탈주체, 가부장적 상징체제, 여성주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같은 부모 슬하의 친자매 삶을 대칭구도로 전개한 작가의 의도를 따라가며, 두 여성 삶의 대비를 통한 작품의 의도와 심층적 주체의식을 분석하였다.

주인공인 영혜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계속되는 고통 속에 성장하며, 상징계를 벗어나 상상계에 거주하게 된 여정을 꺾진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에게 세계 질서란 그녀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폭력적 질서로, 어려서부터 그 현실과 실체를 체현하고 응시했던 그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자 상징체제의 폭력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행동을 시작하였다. 저항의 대상이 의, 식, 주의 생활양식 곳곳에 있다는 점에서, 체제의 개인에 대한 억압과 침범이 지극히 사적이고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새롭게 인지할 수 있었다. 더불어 주체가 갖는 인식과 삶의 방식이 상징계의 에피스테메를 벗어나기 힘들며, 더불어 주체는 사회체제의 산물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자아, 주체’는 한 개인의 정신과 행동, 의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과 체제이념에 따라 구성된다’는 지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영혜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할수록 수많은 체제규율은 오히려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규정, 감금하고 배제해 버리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영혜의 상상계적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 체제질서 대한 저항은 현실에서는 미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상징질서의 엄중한 결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실제 현실에서의 ‘주체’란 체제가 인정할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과 가부장적 상징체제가 구성해 온 여성주체는 본질적으로 비체였음을 드러내는 것이었

다.²⁹⁾

반면 언니 인혜는 체제에 순응하여 최선을 다해 희생적으로 살아왔지만, 자신이 '왜 이런 삶을 선택을 했는지'조차 스스로가 이해 못하는, 제한된 인식만으로 구성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체제이데올로기가 키워온 여성의 실제적 현실 모습이었다. 언니는 '이미 죽은 채'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며 가부장적 상징체제로부터 '탈주'를 꿈꾸는데 출발선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도달 완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유목적 주체로 이동하는, 시대적 주체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듯 자매를 통한 대칭구조는 가부장체제 안에서 '살아본 바 없거나' (언니), 체제에서 추방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되거나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동생), 여성들의 현실적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근이성적 체제에서 결국 존재 자체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거나 체제의 폭력에 온 몸으로 저항해 온, '체현적 주체'의 형상화는 탈주체화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유목적으로 분기되는 현 시대의 '주체'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다음, 자매의 상반된 두 여정의 근간에는 가부장제가 공통분모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떠한 모습의 주체이던 여성은 가부장체제의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로, 그녀들의 숨겨진 아픈 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매일같이 소소한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가부장체제의 끊임없는 '경계선' 침범과 강압적 관리로 여성은 주체 아닌 '비체'로 혹은 상상계를 동원한 '몸주체'로, 유목적 주체로 분기되고 있었다. 이는, 여성은 그 존재적 의미마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존재한 적도 없다는 실제적 여성 현실의 심도 깊은 재현을 통해 가부장적 상징체제의 지배원리와 그 이면과 그 이후를 형상화하는 것이었다.

29) "라캉은 '나를 탈본질화하고, 상징계와 기표를 주체의 우위에 놓는다. 주체를 말하는 것은 언어의 구조이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주체는 의미작용의 연쇄 안에 포획되어 있는 반면, (플루스) 기표는 주체를 특징짓고 상징계 안에서 주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Sean Homer, Ibid, 74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한강, 『채식주의자』, 창작과 비평사, 2007.

2. 단행본

강미라, 『몸, 주체, 권력-멜로로 폰티와 푸코의 몸 개념』, 이학사, 2011, 110면.

박선경, 『해체주의 인식 및 서사기법, 몸담론과 여성담론』, 박이정출판사, 2018, 46면.

사토 요시유키 저, 김상은 역, 『권력과 저항- 푸코, 들뢰즈, 데리다, 알튀세르』, 도서출판 난장, 2012, 49-50면

Sean Homer, 김서영 역, 『라캉읽기』, 은행나무, 2006, 132면.

질 들뢰즈, 가타리 저, 최명관 역, 「1장, 욕망하는 기계들」, 『앙티 오이디푸스』, 민음사, 1994

질 들뢰즈, 가타리, 「차이의 철학과 역사유물론」, 『천의 고원』, 새물결출판사, 2001.

장필화, 『여성, 몸, 성』, 또하나의 문화출판사, 1999, 109면.

Bruce Fink, 김서영 역, 「주체의 전복 The Subversion of the Subject」 읽기, 『에크리 읽기 - 문자 그대로의 라캉』, 도서출판 b, 2004, 200, 202면.

Marian Hersch, The Mother/Daughter Plot, Indiana Univ.press, 1989, p.44

Rosie Braidotti,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도서출판 여이연, 2004, 13,14, 30-31, 59-60, 78, 93, 110-112, 186-187, 188, 190면

3. 논문

박선경, 「자아, 주체를 통제, 규정하는 상징계 질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7집, 2022. 11. 91면.

_____, 「본격화하는 천운영 작가의, 몸 주체의 몸담론」, 『한어문교육』, 제29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40면.

박 진,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글쓰기의 자의식과 독서의 알레고리」, 『현대문학이론연구』, 79, 2019.

백종현, 「인간 개념의 혼란과 포스트휴머니즘 문제」, 『철학사상』 58, 2015.

양진영, 「한강 『채식주의자』에 구현된 헤테로토피아 공간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6호, 2020.

<Abstract>

The escaping body subject & the abject suspicion
- Focusing on 『The Vegetarian』 by Han Kang

Park, Sun-kyoung

By sh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female selves through the work 『The Vegetarian』 by Han Kang, it narrates the appearances of the 'nomadic subject' in that it causes skepticism and "rethinking" the issue of 'subjectivity'. Following the intention of the artist who developed the lives of her sisters under the same parents in a symmetrical composition, she analyzed the intention and in-depth subject consciousness of her work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the lives of two women.

In the end, the symmetrical structure through the sisters showed a divergence into the existing 'cogito's subject' (elder sister), in which phallic rational language was written, and the 'body subject' (younger sister) who resisted the invasion of the bodily boundary with the whole body. This can be said to be the plural form of nomadic subjects as a variant form of the subject and the escaped subject. In the symbolic system, the realistic appearance of women who have never lived (older sister), who are exiled from the system and confined to a mental hospital, or who have no choice but to die (younger sister) is revealed. At the basis of these two conflicting journeys of the sisters, the patriarchal system was established as a common denominator, and the hidden painful truth that women's lives, no matter what shape they were in, was limited to the victims of the patriarchal symbolic system, was being revealed. It begins with the trivial everyday life, and due to the patriarchal system's constant

invasion of the 'borderline' and coercive management, women are diverging into abjects, or body subjects mobilizing the imaginary, or nomadic subjects.

It can be seen that patriarchy is the common denominator at the foundation of these two sisters' conflicting journeys, and the painful reality that women's lives, no matter what they are, are limited to being victims of the patriarchal system is revealed. It started from small everyday life, and due to the patriarchal system's constant invasion of the 'boundary' and coercive management, women were bifurcated into abject rather than subjects, into body subjects mobilizing the imaginary, and into nomadic subjects. This was to embody the violent principles and reality of the patriarchal symbolic system behind reality through an in-depth reproduction of the actual female reality that women are beings who cannot be called 'subjects' and that even the meaning of their existence is not for themselves. This symbolized the perception of the times as a nomadic subject that had no choice but to diverge.

Key words: Nomadic subject, embodiment, body subject, patriarchal symbolic order, Imaginaire, body boundary, abject

투 고 일 : 2024년 2월 15일

심 사 일 : 2024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4년 3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4년 3월 25일